

서남대학교 특별편입 관련

# 원광대 의대 학생회 대자보 반발

### 학생들 "교수들과 학과 전체와의 사전 협의 없이, 학교의 일방적 통보였다" 주장

서남대학교 특별편입을 둘러싸고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15일 원광대 의과대학 등에는 의과대학·간호학과 학생회에서 작성한 '대체 누구를 위한 학교입니까?'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이 대자보에는 "지난해 12월 총장님께서 서남대 의대 재학생을 조건 없이 편입학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이는 교수님들과 학과전체와의 사전 협의 없이, 학생들에게는 단 한 번의 언급도 없이 학교의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적시돼 있다.

원광대 의대 학생들은 대자보를 통해 "학교는 서남대 의대 특별편입을 받기 시작했다"며 "여전히 의과대학

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들은 총장님과 아무런 접촉을 할 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남대 의과대학 편입으로 생기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은 현 학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학생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편입학의사를 밝힌 학교 측이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들은 서남대 의대 특별편입에 대해 학교의 준비가 미흡한 점을 들어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서남대 학생들이 원광대로 편입할 경우 학습 기자재의 부족함이 깊어져 기존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실업기자재와 교육용 기자재의

부족 협소한 강의실, 늘어난 학생 수용할 자습실 등이 부족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현 상황이 계속되면 편입생들과의 유화가 힘들어지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 학생들은 강의실과 열람실, 임상국가실기시험 준비실 등의 확보와 기재재의 추가 확보, 편입생과의 성적 이원화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제2의학과원 집기 비용 지원 약속과 함께 편입생 등록금의 100% 의과대학 지원, 학생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총장에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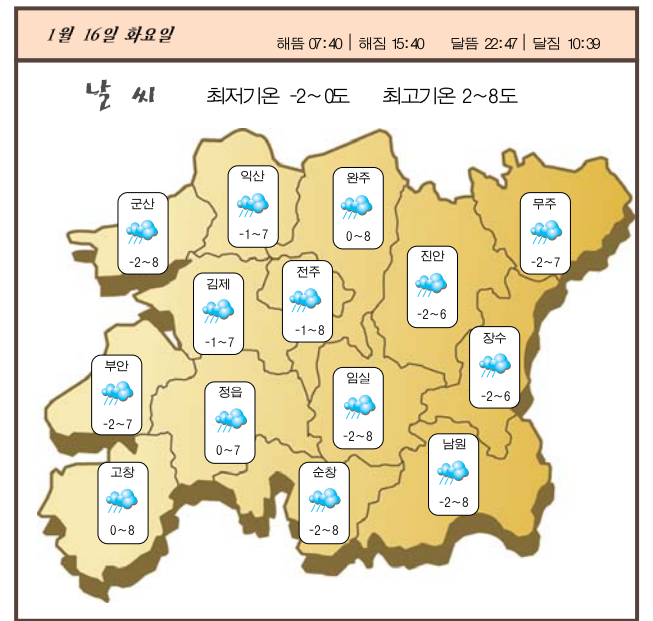
이들은 "서남대 재학생들을 편입시키는 것은 인재 양성의 목적이 아니라 학교 학생 수를 늘리는 결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총장님께서 저희와 만나 학교 측의 입장을 정확히 이야기 해 달라"고 주문했다.

원광대 관계자는 "의대 확장 또는 부화장 체제 하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IT팀을 구성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오해를 최대한 해소하고 그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절충안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김도중 총장을 비롯한 원광대 관계자들은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서남대 특별편입은 전북대 65%, 원광대 35% 비율로 진행되며 그 편차는 5% 내외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김민근기자



### 군산대 김영철 교수

### 대한전자공학회의 회장 선임

군산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김영철 교수가 대한전자공학회의 시스템 및 제어분야 학회장으로 선임되었다고 15일 밝혔다.

임기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김교수는 1년 동안 회장직을 맡아 관련 분야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대한전자공학회는 전자, 정보, 통



신 등 관련 분야의 학술과 기술 진흥 및 발전을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IT분야 최대 학회이다.

통신소프트웨어, 반도체소프트웨어,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6개의 분야가 포함되었다.

시스템 및 제어분야 학회장은 제어계측연구회, 회로 및 시스템연구회, 의용전자 및 생체공학연구회, 전력전자연구회, 지능로봇연구회, 국방정보 및 제어연구회, 자동차전자연구회, 의료영상시스템연구회 등으로 구성되었다.

/군산=김민근기자



국민의례하는 사법연수원 수료생 제47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이 열린 15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수료생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올해 47기 수료생은 총 171명이며 취업률은 1월12일 기준 50.66%다.

## 도교육청, 오늘 평준화 일반고 학교배정 공개 추첨

### 전주 23개교 6278명 · 군산 6개교 1601명 · 익산 7개교 1722명 등 총 36개교 9601명

2018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학교배정 공개 추첨이 16일 오후 2시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공개 추첨에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해 정병식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중등교장단 회장, 언론인 대표, 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 등 6명이 추첨위원으로 참여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도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합격한 전주, 군산, 익산 지역별 합격자를 대상으로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학교를 배정하고 있으며, 이날 추첨을 통한 배정인원은 전주 23교 6278명, 군산 6교 1601명, 익산 7교 1722명 등 총 36교에서 9601명이다.

학교배정은 먼저, 체육특기자, 지적부자유자 및 회귀병 질환자, 다자녀가

정 자녀 등을 선배정하고 공개추첨으로 뽑힌 배정기준에 의해 일반배정 대상자를 1지망 지원자부터 학교별로 선배정자를 제외한 정원수만큼 컴퓨터로 추첨 배정한다.

이 때 1지망에서 배정되지 못한 학생은 2지망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의 2지망 배정 대상자로 분류되어 배정기준에 의해 다시 배정한다. 같

은 방법으로 배정이 완료될 때까지 배정하게 된다.

학교 배정 결과는 오는 1월 19일 오후 2시부터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1월 22일부터 28일까지 해당 학교 및 학교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등록금 납부 등 입학 등록을 해야 한다.

/김민근기자

### 지난해 전북교육문화회관 대출 1위 '자존감 수업'

전북교육문화회관 도서관이 지난해 대출이 많았던 도서를 성인과 아동 분야로 나눠 발표했다.

성인분야에선 자존감 수업, 언어의 온도 등이 가장 많이 대출이 됐으며 82년생 김지영도 순위권에 올랐다.

이동분야는 6층 나무집이 가장 많이 대출됐다.

지난해 대출횟수 57회로 성인분야 1위에 오른 자존감 수업(윤홍근 저, 심플라이프)은 정신과 전문의 윤홍근 씨가 자존감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고 건강한 회복법을 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대출횟수를 보여 공동 1위에 오른 언어의 온도(이기주 저, 말글터)는 출판인이자 작가인 이기주 씨의 말과 글 행동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지난해 페미니즘 열풍의 진원지였던 82년생 김지영(조남주, 민음사)도 대출 3위에 올랐다. 82년생 김지영 씨가 성장과정과 학창시절, 직장생활, 출산과 육아과정에서 겪는 차별과 좌절을 담고 있는 소설이다.

이와함께 지난해말 개봉해 1천백만명의 관객을 끌어 모은 영화 '신과 함께'가 전북교육문화회관 도서관 대출에도 영향을 끼쳤다. 만화 원작인 신과 함께 3저승편(주호민 저, 에니북스)가 4위에 올랐고, 신과 함께 1, 2 저승편이 각각 공동 6위를 차지했다. 또 오래된 백화점을 배경으로 기묘한 편지를 주고 받는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히가시노 게이고 저, 현대문학)이 대출 5위에 올랐다.

/김민근기자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

# 14살 소녀들

여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를 행복은 교육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민, 배은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영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